

환경공무원 1세대 환경인

김형철 회장 -상-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본 일간지 1995년 3월 표지에 모셨던,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으로 계신 김형철 회장님!

‘김형철(金亨徹)’ 씨는 정부가 처음으로 ‘환경보전 의지’를 표출한 ‘환경청’ 개청에 따라 이 나라 환경행정을 이끈 첫 실무 책임자다. 그래서 김형철씨가 1980년 1월 환경청 출발과 함께 ‘계획조정국’ 국장을 시작으로 1994년 12월 환경청 ‘차관’을 끝으로 14년간의 환경행정 재임기간의 공과(功過)에 대해서 양극(兩極)적인 평가가 나온다. 긍정적인 측면은 ‘환경보전’이라면 산업발전과 국토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60~70년대 정부당국의 시각을 바꿔 놓은 것과 환경행정의 기본 틀을 갖춘 것 그리고 환경보전과 성장의 논리를 조화 있게 이끌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행정의 합리성에만 치중하다보니 업무 추진에서 보신주의(保身主義)적이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즉, 초기에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사전 예방)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필자는 김형철씨가 ‘계획조정’, ‘대기보전’, ‘기획관리’ 등의 환경행정 업무의 일선에서 중시하고는 있었으나 당시의 국가 정책적 측면이나 실무 공직의 범주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김형철씨를 처음 만난 것도 1980년 1월 환경청 개청과 함께 한다. 당시 필자가 이끌고 있던 ‘한국환경보호협의회’가 당시로서는 국내 유일한 민간 환경단체여서 당연히(?) 환경청의 환경보전 행정에 필요한(?) 대민(對民) 창구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아 김형철씨와 필자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향도 같은 이북(以北) 출신이라는 친밀감도 작용했는데 김형철씨는 평안남도 ‘평양’이 고향이고 필자는 함경북도 ‘라남’이 원적이다.) 그 당시 환경청 계획조정국엔 국장인 김형철씨와 핵심 간부로 ‘김인환’, ‘윤서성’ 씨가 있었는데 이 세분 trio가 우리나라 초기 환경 행정을 이끌었는데 이분들의 trio를 ‘piano trio’로 대비한다면 김형

첼씨가 piano를 맡아 음악(행정)을 리드하고 김인환씨가 violin을 맡아 harmony를 조성하고 윤서성씨가 cello를 맡아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이끌지 않았나 생각한다.

실제로 김형철씨의 치밀한 기획(계획조정)과 김인환씨의 정확성 그리고 인간성 좋은 윤서성씨의 허허로움이 cello의 중후함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 세분들과의 환경행정 초기의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다. 이제는 다 지나간 옛날이야기라 지금은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열' 씨와의 이야기가 있다. 1983년으로 기억한다. 환경청의 개청에 따라 '환경보전'이 반국가 행위(60~70년대의 국가발전 목표가 성장과 개발에 있던 시절)가 아니라는 진실이 조금씩 정부당국에 인식되어가던 당시 세칭 '명동 위장결혼 사건'(시국선언)으로 옥고(獄苦)를 치루고 출옥한 '반체제 운동가' 최열씨가 느닷없이(정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열' 씨 편 칼럼에 자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당연히 환경청이 발칵 뒤집혔다. 아니, 정부 당국이 '어떻게 된 것이냐?' 촉각을 세워 보사부장관(당시 환경청은 보사부 외청)과 환경청장이 최열씨의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 것이다.

어느 날 환경청 계획조정국 trio 중 두 분이 필자를 찾아왔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모월, 모일에 대학로에 있는 '홍사단 강당'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데 뭘 하려는 것인지 알아보아 달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행사니 공해문제에 대한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행사가 아니겠느냐? 대답하고 왜?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 직접 물어보지 않고 필자에게 그걸 알아보아 달라고 하느냐 물으니...

직접 물어보면 관(환경청)에서 감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알아보니 최열씨가 필자의 작업(환경보호)을 좋게 보고 필자를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는, 필자가 60~70년대의 문제 잡지 '월간다리' 지의 편집장이었기 때문에 반체제 운동을 편 최열씨와 당연히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 아니겠느냐는 시각

이었던 것이다.)

문제의(?) 반공해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려는 것인지 주무관서가 사전에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청장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알아보아 달라고 사정한다. 이토록 반체제 운동가 최열씨의 반공해 단체('한국공해문제연구소') 창립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반정부활동을 암시하는 신호탄으로 보여 정부 당국은 물론 환경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지 않아도 최열씨가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창립하면서 당시 퇴계로에 있던 필자 사무실로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최열씨의 부탁(주로 공해문제를 다루는 대학의 연구소나 학자들을 소개해 주었다.)을 들어준 사이고 최열씨가 이번에 하려는 일이 공해문제 강연회나 토론회 일 것이라 다음 날 종로 5가 뒷골목 한약방 2층에 있던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최열씨를 찾아가 만났다.

사무실에 마침 '정문화' 씨도 있었지만 감출 일도 아니어서 어제 환경청에서 필자를 찾아온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번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당국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번에 할 행사를 그분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니 최열씨가 파안대소(破顏大笑)하며 "선배님에게 부탁할 정도로 우리 '공해문제연구소'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이군요." 하며 행사 계획을 소상하게 알려 주며 그날 그분들도 오시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당일 윤서성씨와 함께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행사에 참석하고 행사가 끝난 후 대학로에서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 후에도 위 trio 분의 부탁으로 몇 번 최열 씨를 만나다가 이런 가교(架橋) 역할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환경청이나 최열씨 모두 궁극적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이라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그렇게 되도록 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최열씨가 환경청에 들어가고 환경청에서도 언제나 최열씨를 만나 논의하는 사이가 되었다.

20여 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최열씨나 김형철, 김인환, 윤서성씨 모두 '일사회'의 같은 회원으로 스스럼없이 만나는 사이가 되었으니 세월이 무상하다.

[계속]